

파리 테러 관련 7문 7답

Quant / Strategist
변준호

02) 3787-2459

ymaezono@hmcib.com

(1) 테러의 정도와 악재의 정도

이번 파리 연쇄 테러는 피해 정도와 이슈화 측면에서 과거 9.11사태보다 충격은 덜 하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테러보다는 좀 더 큰 우려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 비교되고 있는 9.11사태는 테러 대상이 미국이었다는 점, 금융 중심지였다는 점, 테러피해가 훨씬 컸다는 점, 테러가 중계되어 충격이 배가됐다는 점 등에서 지금보다 사태의 심각성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발생했던 과거 테러 사례들보다 피해 규모가 크다.

(2) 경기 영향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던 유럽 경기는 이번 테러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파리가 유럽의 중심 도시라는 점 이외에 유럽이 지리적 통합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심리 위축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럽 내수가 약화되면서 유럽으로의 수출 비중이 큰 중국도 수출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경기 심리가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타이밍 상 회복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

(3) 글로벌 정책 대응

유럽 경기 악화가 불가피해 보여 12월 유로존의 경기 부양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당시는 유럽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유로존의 경기 부양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스탠스와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역시 11월 유로존 수출이 확인되는 12월 초 중순을 전후로 추가 부양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방과 IS간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

(4) 미국 금리 인상 시점 지연 가능성

이번 사태로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의 지연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IS가 추가 테러를 언급했기 때문에 12월 FOMC가 있는 12월 중순 이전에 서방의 테러 저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월 초 확인될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이번 테러 사태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즉,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낮아지고 11월 고용지표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조건부 이벤트로 변화했다는 판단이다.

(5) 증시 영향

본 사태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증시가 받는 압력은 9.11 사태와 같은 폭락 사태까지는 아니겠지만 유럽의 과거 테러 사례들에서 피해국 증시가 당일 1~3% 정도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 증시는 월요일 증시에서 3% 수준 혹은 이상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프랑스 수출 규모는 전체의 1% 미만으로 크지 않지만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 영향으로 동반 하락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위험자산인 유가 역시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서방과 IS간 전쟁 가능성으로 인해 상승 압력도 공존한다고 판단된다.

이번 사태로 인한 KOSPI의 단기 하락세가 불가피 보이나 대략 PBR 1배(최근 4분기 확정 자본총계에 대한 시가총액 기준, Wisesn 기준)와 PBR 하락 트렌드의 저점 연결대인 1,900p 수준은 강한 지지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증시 회복 시점

당연하게도 증시 회복 시점은 추가 테러 위험이 확연히 축소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혹은 미국이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없다고 밝혔으나 지상군 파병이나 폭탄 투입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정 시 그 이벤트가 강하게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역으로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FOMC 측면에서 보면 12월 미국 금리 인상의 윤곽이 드러날 12월 초에 불확실성의 점진적 해소가 예상된다.

(7) 스타일과 업종 전략

이번 사태는 Size 측면에서 중, 소형주대비 대형주의 상대적 매력도를 지속시켜 주는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국인의 매도 압력으로 대형주가 크게 영향을 받겠지만 외국인 매도 규모가 큰 경우 대형주가 덜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또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대형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 급락한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전망이다.

▶ Compliance Note

-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추천일 현재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위아와 계열사관계가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본 조사항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